

법률 시와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 Become one.

2026. 05. 06.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aw&Company

I. 들어가며

스피커 소개

박영준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센터장 / 변호사(변시 11회)

현)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센터

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전) 법무법인 이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기업법무 특성화과정 이수

고려사이버대 시데이터과학부 (인공지능전공) 공학사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Ethics of AI 과정 이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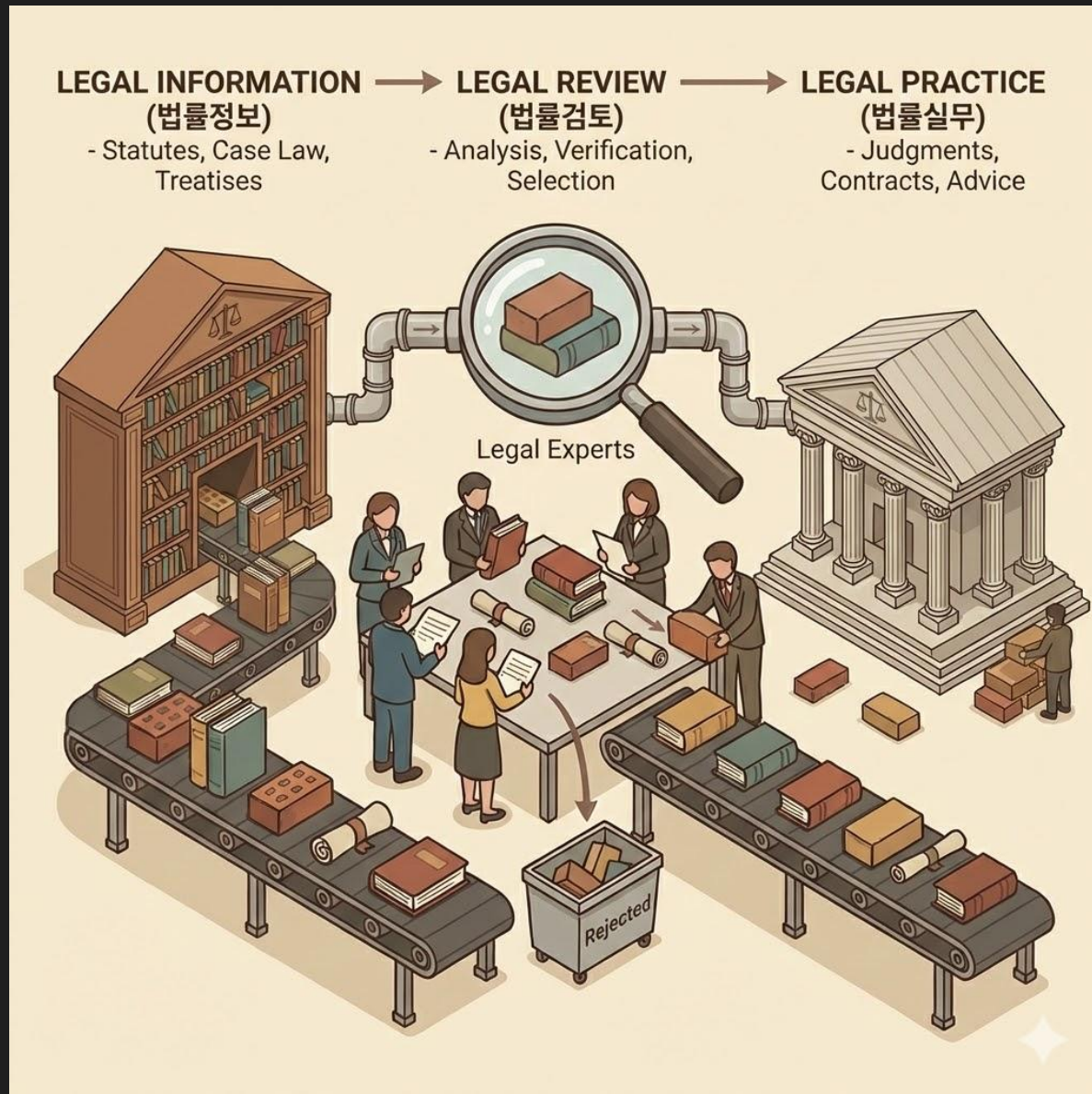
I. 들어가며

로앤컴퍼니 소개



법률사무 전역을 아우르는 서비스 포트폴리오 완성.
종합 법률사무 지원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II. 법률실무와 법률정보조사



1. 법률검토의 의의

- **법률검토**란 특정한 사실관계나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 판례, 법리를 해석·적용하여 법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2. 법률정보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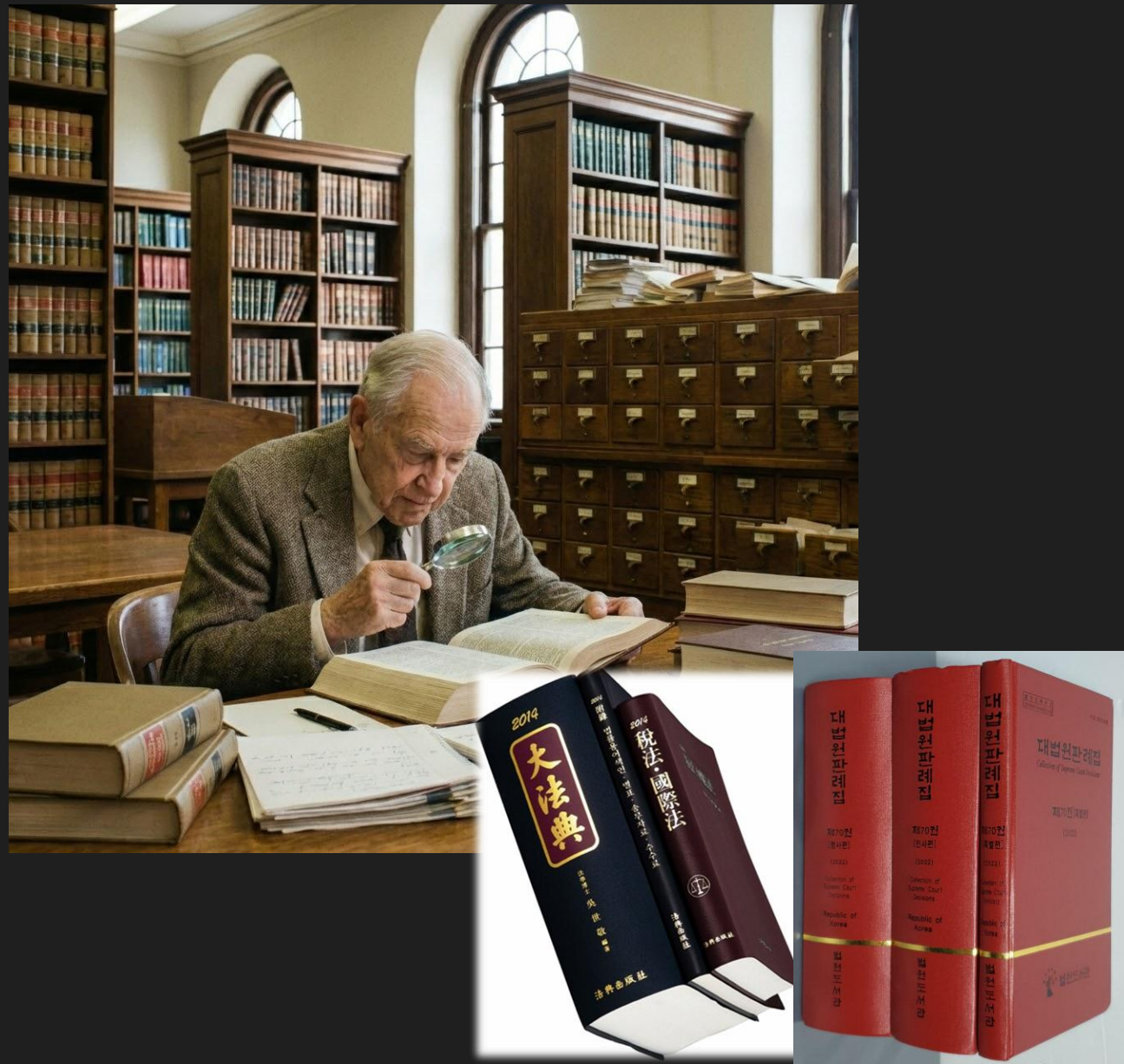
- 법률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자료
- 법령, 판례, 이론 등

3. 법률실무에서의 법률정보조사의 중요성

-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팽창 및 변화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항상 완비하고 있을 수 없다
- 뛰어난 법률가는 갖추고 있는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논증의 큰 틀을 잡고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정보를 조사 및 분석한다.

III. 법률정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

1. 전통적 법률조사방법



디지털 기술이 보급되기 전, 법률조사는 종이로 된 서적과 도서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

- 주요 매체 : 관보, 법전, 법원 판례집, 학술지, 주석서
- 조사 방법 : 색인을 통해 키워드를 찾고, 해당 키워드의 페이지를 찾아 읽음(서지학적 방법론).
- 특징
 - 법률가 개인의 숙련도가 중요
 - 필요한 자료에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하여야 함
 - 새로운 정보가 종이 매체로 인쇄되어 배포되기까지 시차가 발생

III. 법률정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

2. Computer Assisted Legal Research (CALR)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민간 주도로 법률정보의 컴퓨터DB화가 시작됨(WestLaw, LexisNexis). 반면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이 주도(법고을 LX). 2000년대 이르러 인터넷의 대중화로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음.

- 주요 매체 : 플로피디스크, CD-ROM, 인터넷
- 조사 방식 :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법률정보를 컴퓨터 DB 통하여 검색
- 특징 : 방대한 분량의 컴퓨터DB에서 필요한 법률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음.



III. 법률정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

3. AI Assisted Legal Research (AI-ALR)



- 검색 알고리즘 진화 : 2010년대부터 머신러닝과 자연어처리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키워드’ 중심에서 의미(Semantics) 중심으로 진화.
- 생성형 AI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 인공지능이 컴퓨터 DB에서 필요한 법률정보를 직접 찾고, 찾은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제공.
- 한계
 - 수동적, 사용자의 명령 프롬프트에 크게 의존.

III. 법률정보조사 패러다임의 변화

4. [미래]Legal Agentic AI



- 인공지능이 단순한 검색이나 요약を 넘어 법률전문가의 동료 역할을 수행.
- Legal Agentic AI는 스스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서 쟁점을 추출하며,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법률정보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사람이 놓친 부분도 지적해줄 수 있다.
- 증거 조사 에이전트, 법률정보조사 에이전트, 서면 작성 에이전트 등 다양한 에이전트를 결합한 MAS(Multi-Agent System)은 한 명의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IV. 법률AI를 활용한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법률가를 위한 올인원 AI 어시스턴트

SuperLawyer

검증된 법률데이터와 생성형 AI가 완성하는 최상의 시너지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95% 이상의 고객 추천으로 검증된 전문 AI 솔루션이 법률 업무의 생산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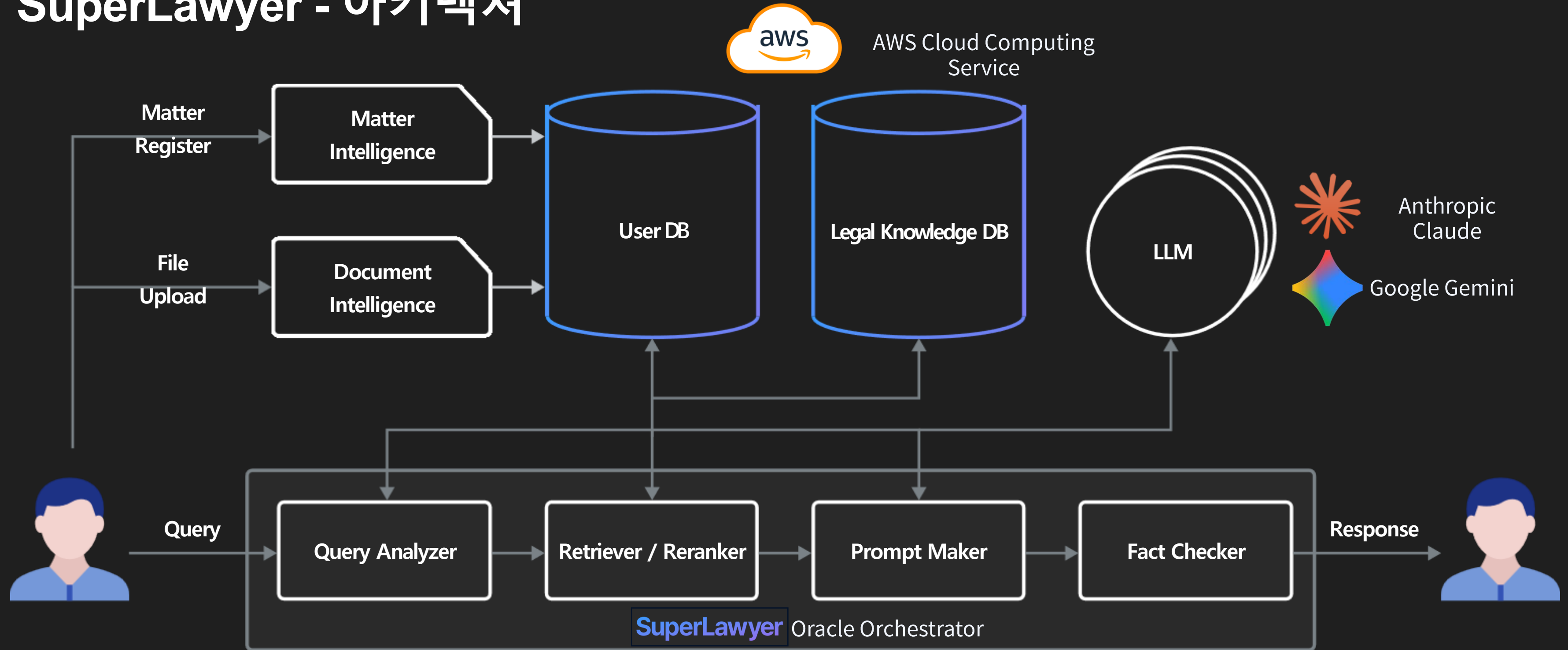
무료체험 시작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 찾아서 분석해줘. |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uperLawyer AI interface. On the left is a navigation sidebar with options like '대화', '문서 작성', '내 드라이브', and '새 대화'.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search result for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 분석'. A blue callout box highlights the search query. The result includes a summary and a detailed analysis section titled '1.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무죄 판결의 주요 사유'. The analysis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driving performance and blood alcohol concentration, citing a court decision (대전지방법원 2013노226 판결, 정승운, 『공법기록원 공법소송실무』, 박영사(2017년), 102면) that states that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0.2% or higher does not automatically result in a conviction for drunk driving, as it must be proven that the driver's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impaired.

IV. 법률AI를 활용한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 아키텍처



IV. 법률AI를 활용한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 기능

대화 : 법률 리서치

법률 리서치가 필요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 실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법률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답변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인용된 판례와 법령 등은 링크가 제공되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인용된 서적의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530만건 이상의 판례 데이터

현행 법령 및 연혁 법령 전체

심결례 행정규칙 유권해석

교과서 실무서

... 데이터 순차 업로드 중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

박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알려줘

S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

1. 판례 변경의 개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0다247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시했던 '고정성'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2. 종전 판례의 입장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

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고정성'을 꼽았습니다.

나. 고정성의 의미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다. 재직조건부 임금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종전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SuperLawyer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임금

상하급심 판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173367 판결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75299 판결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임금

AI 유사판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16957 판결

임종률, 김홍영, 『노동법(제22판)』, 박영사(2025년), 373면

1.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조). 이 규정은 사용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졌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적어도 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합의(근로계약)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리를 밝힌 것이다. 근로조건을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은 단체협약이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방식도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5조). 이 규정은 근로조건을 단체협약,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어느 방식으로 결정했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조). 이 규정은 근로 기준법의 기준이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헌법 32조 3항) 필요한 최저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조건을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한다 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법정기준으로 낮추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법정 기준이 아니라 경제, 경영상의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낮추는 합의는 허용된다.

1)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이 규

요청하실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IV. 법률AI를 활용한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 기능

로폼 : 법률서면 작성

상대방 소장에게 대한 답변서 초안이나 계약서, 각종 신청서 등 필요한 법률 문서의 초안을 요청하세요. 서식의 목차와 형식에 맞춰 단 1분 내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추가 지시를 통해 초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및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
- 답변서
- 준비서면
- 계약서

그외 기타 법률 서면 초안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uperLawyer AI interface. The main window shows a draft of a legal document titled '항소이유서(금원의 성격 - 대여금 vs 투자금 쟁점, 피고 박을남)'. The document content includes:

- 항소이유서
- 사건 [사건번호 입력 필요] 대여금
- 원고(피항소인) 김갑동
- 피고(항소인) 박을남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제출합니다.
- 다음
- 1. 제1심 판결의 요지
- 원고(피항소인,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피고에게 2021. 3.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호증 번호 입력 필요])의 존재,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원심법원 및 사건번호 입력 필요]).
- 2. 항소이유
- 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합니다)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 피고는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투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증거에만 의존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1호증 내지 제13호증)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명백히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반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 나.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입니다.
- 1)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기준
- 대여금과 투자금은 원금 반환 의무의 존부 및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대여금은 원금 보장이 전제되고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반면, 투자금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 분배 여부 및 원금의 손실 가능성까지 감수하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나56672 판결 등 참조).
- 어떠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금원 지급의 경위,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여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530764 판결 참조).
- 2)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제3자 'C'의 사업에 투자한 것입니다.
-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개인적인 생활 자금이나 피고가 운영하는 '웅천 족발' 가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돈이 아닙니다.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제3자인 C가 운영하는 동대문 원단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명백한 '투자자'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 가) 원고 스스로 '수익률'을 논하며 투자자로서의 면모를 보였습니다(을 제11호증, 제12호증).
- 원고는 지인 D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금원이 C의 사업에 투자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수익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그쪽(C)에서 뭐 7%였는데 (박을남이) 3% 떼고 여기(나에게) 4% 줘. ... 그래서 이제 (박을남이 떼는 몫을) 2%씩 해서 (내가 5%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피고의 중개 역할 및 자신의 수익 배분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을제11호증 김갑동-D사장 녹취록.hwp, 1쪽). 이는 원리금의 확정적 반환을 전제로 하는 대주(貸主)의 모습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의 수익률을 조정하려는 투자자(投資者)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 또한, 원고는 C의 사업 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D에게 "지금 물린 건 전부 C 사업에 들어간 돈이잖아. 액수가 비교가 안 돼"라고 말하며, 자신의 돈이 C의 사업에 투입되어 사업의 위험과 직접 연동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을제11호증 김갑동-D사장 녹취록.hwp, 1쪽).

The right sidebar shows search results for '대여금 · 김갑동' and a list of references including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0764', '대법원 2001다72029', and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6672'. A chat window at the bottom right contains the text '문서에 대한 설명/요청/질문을 입력해 주세요.' and a search bar with '법률 리서치'.

IV. 법률AI를 활용한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 기능

지식베이스

각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업로드하여 슈퍼로이어가 답변 생성시 참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당 100개의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고, PDF/워드/한글/이미지 등 11개 형식의 파일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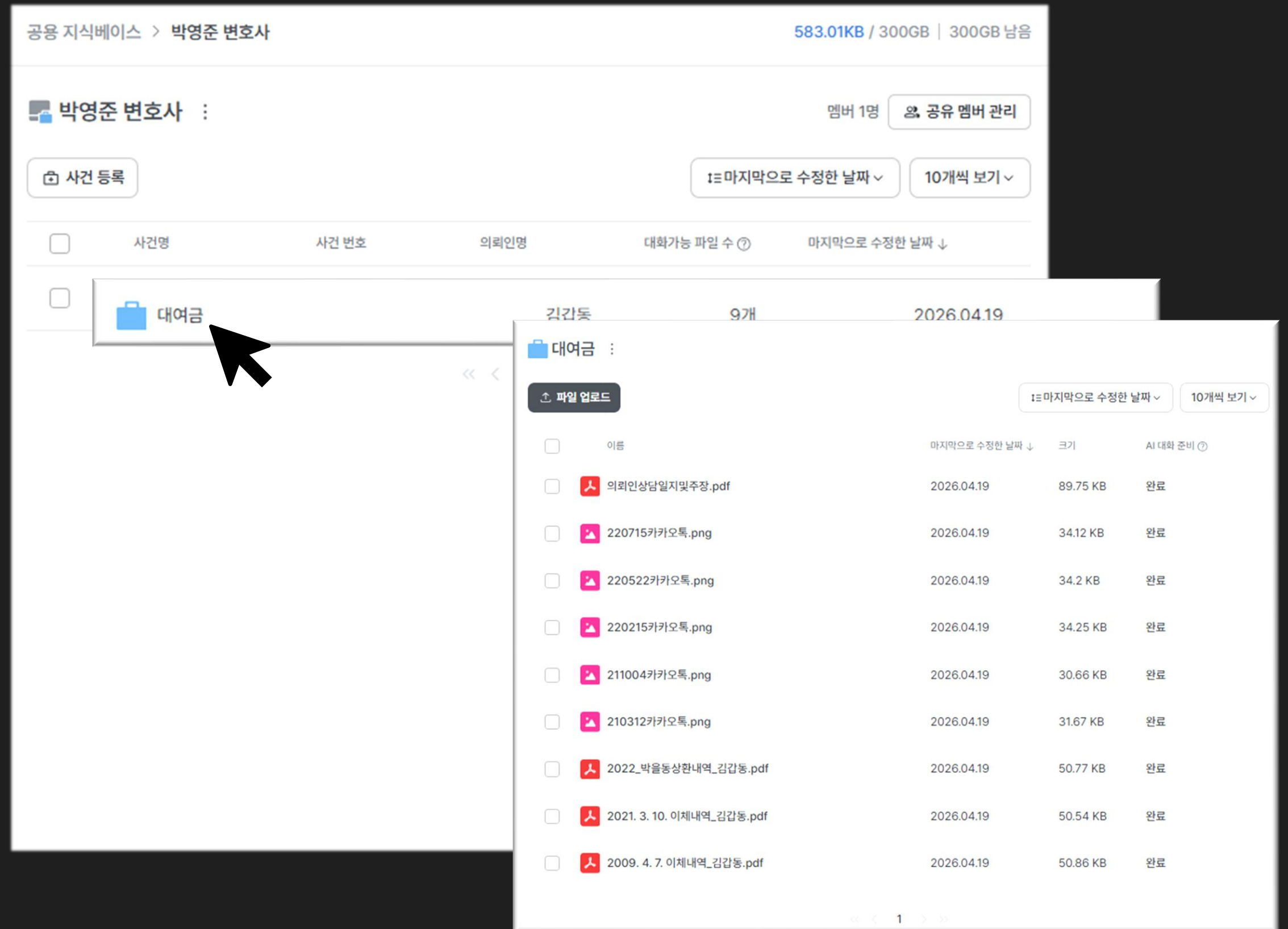
국내 최고 성능의 OCR 솔루션을 탑재하여, 수기로 작성된 한글 문서도 높은 정확도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 소송기록

✓ 증거자료

✓ 수기작성

✓ 다양한 문서



IV. 법률AI를 활용한 법률정보조사

SuperLawyer - 시연

친구 초대하고 70,000P 받기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 다른 변호사님들은 슈퍼로이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활용 사례 바로가기 >
- 문서를 활용한 대화도 가능해요
이미지 포함 11개 이상의 파일 형태 업로드 가능
문서 업로드하기 >
- 진행 중인 사건에 활용해 보세요
사건 기반 대화로 원하는 정보만 빠르게 확인
사건기반 대화 시작하기 >

아래 예시를 참고해 질문해보세요.

- 전체 민사 형사 자문 가사 특허 행정
- 야간 자전거 사고의 법적 책임 분석
야간에 자전거 도로에서 라이트를 착용하지 않은...
- 금전대차계약의 사기죄 성립요건 검토
피해자가 A씨에게 1억원을 대어하였는데, A씨는...
- 미국 법인 설립 유형별 장단점 비교 분석
미국에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Corporation과 ...

다른 프롬프트 보기

서면 작성 스트레스 끝! 통품으로 쉽고 빠른 서면 작성 [더 알아보기 >](#)

요청하실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Q 법률 데이터 선택

슈퍼로이어가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니, 답변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1. 명확한 지시

-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용어**를 사용한다.

2. 풍부하고 구체적인 맥락(Context)의 제공

- 관련된 배경, 상황, 의도 등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여 슈퍼로이어가 보다 적합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시의 순서

- 많은 맥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음이나 끝에 지시사항**을 제시한다.

4. 점진적 개선

- 기존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시**를 함으로써 산출물을 발전시킬 수 있다.

5. 산출물에 대한 검증

- 언어모델은 **환각(Hallucination)**의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반드시 결과물을 **세심하게 검증**한다.

슈퍼로이어 잘 쓰는 방법 - 산출물 검증

제5장 소송당사자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법원의 대응

1.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밝혀야 할 소송당사자의 의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뿐만 아니라 동영상, 그림, 음성 등의 증거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성 또는 제작되었다고 의심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지적하는 경우, 제출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성·제작된 것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소송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사용된 인공지능 도구, 입력된 프롬프트, 소송당사자가 인공지능 결과물 검증을 위하여 취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소송지휘할 수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었는지 밝히도록 하는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등의 개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딥페이크 사용으로 인한 문제)

소송당사자가 딥페이크를 사용함에 따라, 법원은 딥페이크 여부가 쟁점이 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실제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법작용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판례를 인용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 지방 소재 법원 형사 재판부는 A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를 법원 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A 변호사는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 문제가 된 판례를 철회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에 대한 출처를 물었고, A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AI 환각 현상이 만든,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다가 발각된 것이다.

“[단독] 이 판결,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신문 2025. 9. 27. 보도 기사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2025. 2.

석명준비사항

1. 피고가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의 원문을 모두 제출하기 바랍니다.
2. 제출한 답변서 등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 중 해당 판결이 존재하지 않거나 판결요지가 실제와 상이한 허위 판결을 모두 특정하여 밝히고, 허위 판결이 인용된 주장서면의 작성자, 허위 판결 인용 경위 등을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허위 판결과 그 요지를 인용한 부분을 주말 처리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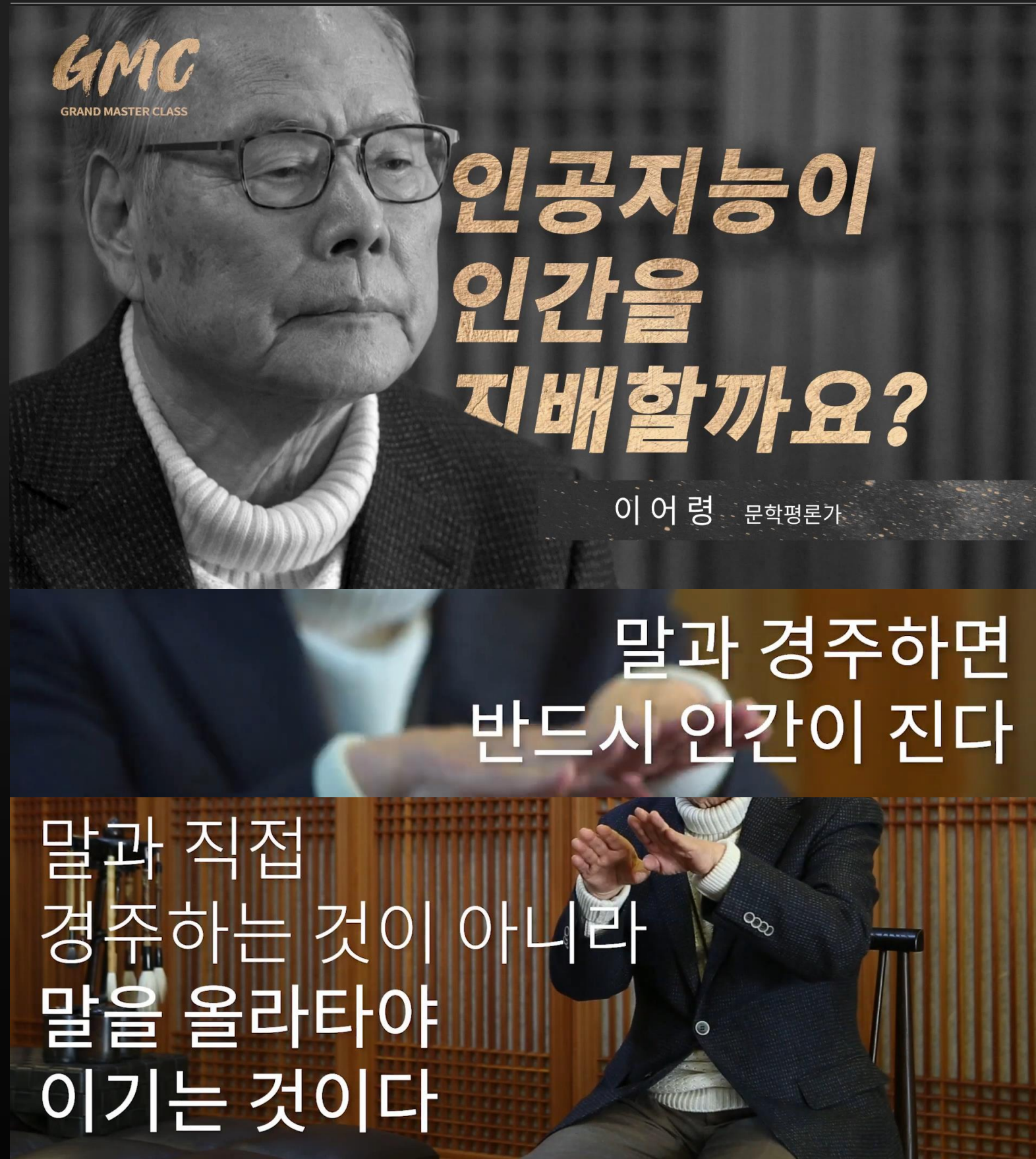
법원행정처는 2025년 10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조에 'AI 환각(Hallucination)'이 불러 온 부작용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에는 법원 구성원뿐 아니라 일부 외부 위원도 참여했다. TF는 허위 판결이나 법령을 제출한 것이 발각될 경우 재판부가 △해당 변호사(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과하거나 △해당 변호사의 진술을 제한하거나 △허위 판결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판결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가능한 안들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는 것도 논의했다. 허위 정보를 검증 없이 기재할 경우 재판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독] 'AI 환각 오류' 제재안 나온다”
법률신문 2026. 3. 18. 보도 기사

슈퍼로이어 잘 쓰는 방법 - 산출물 검증

<https://superlawyer.co.kr/academy>

5. 마치며



Q. 가까운 미래에 모든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하고, 법률 전문가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인공지능에게 대체된다면 너무 허망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 AI? : **Augmented Intelligence** vs Artificial Intelligence
- (X) 인간 vs 인공지능
- (O)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 vs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인간
- 잘못된 지시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Garbage In, Garbage Out)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더 깊은 도메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법학 전문성이 높은 법조인만이 살아남는다.

5. 마치며



피터 톨(Peter Thiel)

-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의장
- 페이팔,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 Stanford Law School J.D.
- 미 연방항소법원 재판연구원, Sullivan & Cromwell 변호사

“인간과 컴퓨터가 각자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극적으로 더 훌륭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인간의 지능도, 컴퓨터의 지능도 혼자서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

SuperLawyer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앤컴퍼니 법률콘텐츠센터

박영준 변호사

yj.park25@lawcompany.co.kr